

“머리 속 메모리칩 자주 포맷...항상 새롭게”



지혜의 삶을 디자인하는 배우 겸 사업가 이 의 정

“조급해하고 기대치를 설정하면 삶은 힘들어져요. 항상 내 삶을 사랑하고 만족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장 풍요로운 부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기억의 시간을 선물하는 이가 있다. 그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 세상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는 바로 배우 이의정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스타라는 화려한 은막 뒤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짙은 고독이 연상된다. 군중속의 고독이란 대중의 관심을 이슬로 먹고사는 이들이 지녀야 할 숙명과 같은 것으로 단언돼왔다. 그러한 편견을 허물고 지극히 진솔하고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선 그의 근황이 궁금했다. 그의 관심사는 연예활동과 무관하게 인

전수하고 있죠.”

아미까(amicca)는 창조적인 컨셉에 중독된 친구들이라는 이탈리아어다. “의류쇼핑몰이기에 전에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말하는 그는 온라인 일기장과 코디 자랑 게시판을 통해 대중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었다.

인간 이의정이 당연한 자유를 즐기는 비결은 어머니로부터 기인한다.

“어머니는 냉정한 분이세요. 절대 자상하지 않죠. 저를 현재의 자립심으로 살아가도록 키워준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고, 네가 친 사수수역시도 네 몫이다’라고 가르쳐줬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자식은 부모 인생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는 깊은 뜻을 알았죠. 하나의 인격

봉사활동 기억을 떠올렸다.

“종교인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준 분이 미얀마문화원 원장 목탁 스님이세요. 오지에서 하드웨어를 마다않고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 저분이 진정한 종교인이구나.’ 인정했죠. 그 후 스님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해 바자회도 열었어요.”

연예인으로서 다양한 삶을 누려온 그가 인생의 고비 한 가운데서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 한 집안의 막내로 제일 강한 리더십을 지녔다고 자부해온 그가 비로소 어머니의 불심에 공감한 순간이다. 이후 목탁 스님을 또 한 분의 아버지로 여기며 신형 활동을 하고 있다.

“좌절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임종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인식된 메모리칩을 자주 포맷해 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일체 마음에 달렸다. 바로 내가 마음의 주인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결국 마음가짐의 노력이에요. 스스로 내 몸과 정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불교에서 배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연법을 믿거든요. 제가 현재 사업가잖아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급증하는 연예계 비보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전쟁으로 인명 피해가 급증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험뜯고 질투하는 마음이 늘어날수록 그것이 종말과 다름 아니죠. 자비와 정이 메마른 지구는 싫어요. 이 기우를 단번만이라도 버리고 그 순간 누군가를 향해 배려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지구가 된다고 봐요.”

마음을 활짝 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하는 그는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더라 제중감량의 비법을 공개했다.

“을 가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방법은 바로 사할 음식이에요. 다이어트에는 최고랍니다. 어머니가 젊에 가자고 할 때는 항상 ‘의정아! 절뚰 먹으러가자’고 하세요.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나물과 불자들이 올린 공양미로 지은 밥을 먹다 보면 최고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대신 반드시 소식해야 합니다.”

특유의 입담과 해맑은 웃음으로 현대불교신문 창간14주년 인터뷰를 흔쾌히 받아들이던 만능엔터테이너 이의정. 그의 이름처럼 부처님의 광명을 널리 펼치는 건강한 행복전법사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직업에 얽매이지 않는다’ 생활신조...취미는 PC게임 어머니 불심에 늘 배우는 자세, 투병중에도 해외봉사활동

타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관리에 집중돼있었다. 1982년 아역배우로 데뷔, 20년 이상 연기 활동을 해온 그는 “배우라는 직업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삶의 신조다.

“소녀 가장 역할을 비롯해 다양한 배역을 연기했지만 시트콤 ‘남자셋여자셋’ 변개머리 이미지가 강하게 인지됐어요. 그러고 보니 유일하게 악역만 안 해봤네요. 웃음을 전하는 캐릭터라면 가리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펼치고 싶어요.”

그의 유일한 취미는 PC용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다. 가상의 종족 ‘프로토스’와 ‘저그’ 아바타(Avatar)들과 공격 전략을 펼치다보면 손에 쥐가 날 정도다. 새로운 아이템 구상을 즐겨하는 그의 인간관계가 여실히 들어나는 일례다. 인연 맺은 이들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는 비결은 물론 한시 재기 발랄한 그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취향은 온라인 쇼핑몰 ‘아미까(www.amicca.co.kr)’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미까를 입으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체·완전한 생명체로 저를 인정한 거죠.”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진 그의 모친 다행미(多行美) 보살은 부처님이 탄생하며 인간의 존엄을 사자후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담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의 참 의미를 딸에게 일깨워 주고자 한 것이다.

“어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셨어요. 어머니에게 불교란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와 같았고 그 안에서 많은 위안과 안정을 누리셨죠. 항상 두 아들과 두 딸의 건강을 부처님 전에 지극히 발원하셨어요. 얼마만의 기도였지만 그 마음자리가 자연스럽게 저에게 물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막내인 저를 불심으로 낳았다고 자랑하세요. 제 생일이 성도재일이거든요. 지난봄에는 어머니를 통해 산사음악회 MC 제안을 받고 공연 날짜를 묻자, ‘부처님이 알려 주실꺼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 불심이 이정도예요.”

그는 불과 2년 전에 뇌종양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투병 당시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향했던 미얀마

글=가연숙 기자 ornflower@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illo@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희담석

www.jawonet.com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료기,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석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는 수천년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세탁가능)

제품구성 : 희담석 매트 필름기 외피 + 온도조절기 + 열판 (전선파가 거의 없는 무지개열선 사용)

내 용 : 희담석 60% + 제올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 ① 170cm x 50cm (사선) 가격 250,000원
② 170cm x 60cm 가격 550,000원

희담석 온열매트 (세탁가능) 속엔 돌도주는 희담석 매트

정신집중이 잘되는 희담석 방석

필름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필름패드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염주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9-48 금계동길 89-38 TEL:023476-2335 FAX:023476-2505